유한킴벌리 인권경영선언문

유한킴벌리는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Respect)의 책임을 다하고,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에 힘쓰며, 모든 사업활동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합니다.
본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가법과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원칙('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글로벌콤팩트', 'UN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등)을 준수하며,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8대 원칙을 선언합니다.

---

01 국가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02 인권존중의 첫 과제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03 법에서 정하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04 고용과 노동 및 사업 활동 전반에서 차별과 괴롭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05 공급망의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사전예방에 노력합니다.

06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하고, 삶의 질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협력하며, 현지 주민의 토지권과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07 소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개선조치를 수행합니다.

08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의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인권 보호에 앞장 섭니다.

2022년 3월 30일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진재승

유한킴벌리